



김 용 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백세시대의 미래상과 대응전략

백세시대가 세간에 화두가 되고 있지만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인간은 본능적으로나 이상적으로나 백세 이상의 영생을 꿈꾸고 갈구하여 왔다. 노인 어르신들이 ‘빨리 죽어야지’ 하는 것은 진정으로 살기 싫다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살면서 못 볼 것을 보는 것이 힘들어서 하는 말일 것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神과 人間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신은 영원히 죽지 않는데 비하여 인간의 수명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의 모습은 동화책의 피터팬처럼 항상 어린이거나 그리스 신화의 아프로디테처럼 항상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거나 옥황상제처럼 항상 머리가 흰 노인이듯이 항상 같은 모습이다. 하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백세시대의 의미는 더 이상 늙지 않고 그 얼굴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생로병사의 운명적인 삶은 살아가지만 그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이다. 즉,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희로애락 자체가

없어지는 평온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희로애락은 그대로 있지만 그 기간이 80년에서 100년으로 늘어난다는 것이기에 단순히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닐 것이다.

더욱이 충격적인 것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30~6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평균수명 100세 시대에 따른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이다. 응답자의 43.3%는 90~100세 이상까지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고 답했다. 축복이라는 답변은 28.7%에 그쳤다. 평균수명의 연장이 단순히 기쁨과 사랑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화나고 슬픈 것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이러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조사한 것이어서, 현재 노인들의 삶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청장년층이 느끼는 생활의 어려움과 노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우리나라 사람의 인생주기를 보면, 국

민인식 조사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해방이후 우리 국민의 평균수명은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경제·사회적 환경도 농촌 농업 중심에서 도시 제조업 중심으로 크게 변하였다. 농업 중심 사회에서는 넉넉하지 못하고 일이 힘들기는 했어도, 도시생활과 같은 스트레스나 실업, 은퇴의 위험이 없이 평생 동안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산업사회에서는 평균수명이 늘어난 것은 일없는 기간이 늘어난다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산업사회의 라이프사이클 패턴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평균수명의 연장은 불안과 걱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보통사람은 누구나 노령이 되면 일반적으로 빈곤·질병·고독이라는 삼고(三苦)에 직면하게 된다. 경제적 안정은 사람마다 원하는 정도가 다르겠지만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하고, 건강은 사망하기 직전까지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로 관리 가능해야 하며, 누구도 의존감이 상실될 정도의 외로운 상태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대부분이 90세 넘게 살 수 있는 장수사회는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이다. 복지 선진국조차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이 몇십 년 전에 불과하고, 이웃나라 일본은 세계 최장수 사회이지만 고독사·무연사회 등 다수가 부족한 소득과 부실한 건강, 그리고 외로움 속에서 노년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기사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

우리의 현실도 더 낮다고 보기 힘들다. 일단 노후소득이 불안하다. 사회보장제도로 국민연

금이 있지만 충실하게 가입해도 연금으로 100만 원 받기가 쉽지 않다. 일하고 싶지만 일할 자리도 만만치 않다. 젊었을 때 피땀 흘려 모아놓았다고 해도 달랑 집 한 채가 전 재산이고 변변한 금융자산도 없다. 자녀들 학비와 결혼비용 대느라, 미처 자신의 노후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다.

건강한 노후도 자신할 수 없다. 노인 중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질병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80%를 넘는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암과 같은 중대질환도 증가하지만,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만성질환도 급속히 늘어난다. 오래 사는 것을 두렵게 만드는 치매·중풍과 같은 노인성 질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평균수명 연장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보다, 그 이면에 존재하는 인생을 행복하지 않게 생각하는 팍팍한 삶 자체가 더욱 근본적인 문제다. 이는 단순한 물질적 만족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는 광목할 경제성장으로 절대적 빈곤은 극복했다. 그러나 지나친 경쟁 속에서 일등이 아니면 불행한 사회가 조성돼 있고, 패자를 보듬어 줄 사회적 시스템도 충분하지 않다. 게다가 고령사회 진행 과정에서 세대 간 갈등의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장수사회가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득과 건강을 보장하는 복지시스템부터 촘촘하게 재설계해야 한다. 일단 노후가 되면 최소한의 노후소득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험료를 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기초노령연금제가 보완할 수 있도록 다져나가야 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예방적 건강증진 대책의 강화와 함

게 노인성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인구 고령화가 급격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제도를 받쳐줄 재정불안이 문제다. 국민연금은 수정적립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2060년까지는 적립기금이 유지되지만 그 이후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하고, 건강보험의 경우 당년도 예산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국민연금과 달리 고령화쇼크가 즉각적으로 전달된다. 최근 추세가 계속되면 2050년경에는 건강보험료만 8%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렇지만 적용범위와 보장성에 대한 욕구도 완전히 충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재정압박 요인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인구비율이 현재의 11%선에서 38%선으로 높아지는 2050년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보장 재정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금부터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더욱이 국가와 사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사실 국가가 기능을 하기 이전에는 가족 울타리가 든든한 병풍이 되었지만 이제는 가족 울타리는 느슨하게 혹은 사라지는 추세에 있다. 자녀에 종속된 전통적인 노인의 삶은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개인들은 스스로 길어진 노년생활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인 3품 모두에 대하여 자기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과 같은 공적연금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혹은 금융자산을 확보하여 여유있는 생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제 대박을 노리는 투기방식보다는 안정성을 목적으로 한 포트폴리오를 설계해야 한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투자도 젊었을 때부터 해야 한다. 사람의 신체가 몇 살까지 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지는 하느님만 알겠지만 적어도 대부분 사람의 경우 조심해서 쓰는 것과 막 쓰는 것은 확실히 다를 것이다. 80년 동안 쓰는 전략과 100년 동안 쓰는 전략은 달라져야 한다. 술과 담배로 자신을 더 이상 확대하지 말고, 각자의 몸의 특성에 맞게 먹고 운동하는 지혜로운 건강비결을 스스로 터득해 나가야 한다. 또한 노인이 활력 있는 삶을 살도록 근로와 봉사 등 사회 참여활동과 네트워크를 넓혀 나가야 한다. 그리고 물질적 만족보다는 정신적, 내면적, 문화적 추구가 행복이 되는 삶의 철학의 전환도 중요하다.

한층 더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사회 패러다임이 성장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한 단계 더 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장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이 목적이 되고 그러한 행복이 지속 가능하도록 국가와 사회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재구축한다. 그 이후에만 백세시대의 미래가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구체적인 설렘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문건필**